

「하늘창문」 소식지

Incheon Airport Facilities Corporation

발간일 2022. 7. 29. | 2022-2호

발행처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310호

편집처 경영기획그룹 기획예산팀

「하늘누리 봉사단」 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하늘누리 봉사단의 지속적인 노력”

7월 6일 우리 회사 자원봉사단인 ‘하늘누리봉사단’이 디차힐 아동복지 시설에서 맞춤형 환경개선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차힐 아동복지시설 도장 작업, 에어컨 청소, 안전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 활동은 공항시설 전문기업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을 관리하는 내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인천공항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하늘누리 봉사단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활동 단체 기념촬영

여성리더십 교육

“경쟁력 있는 여성 리더 육성프로그램”

여성리더십 교육이 6월 8일 제2합동청사 CS아카데미 1강의장에서 ‘경쟁력 있는 여성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리더십 발휘 및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회사에서 처음 시행된 여성리더십 교육으로, 체계적인 여성 인력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간부나 고급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시대 변화에 따른 여성리더십의 변화, 조직 내 여성에게 발생하는 이슈, 관점의 변화를 통한 상호간의 인식 변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급 및 현장의 여성직원들이 함께 모여 유대감을 형성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담당부서인 인사팀은 올해는 라급이상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향후 전사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성리더십교육 진행 모습

직원 기고

하늘창문 소식지 직원참여 공모 중 코로나19와 공항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고명 : 코로나 이후 공항의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공용여객사업소 이상권님-

22년 6월.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이라고 믿고 싶은건지도 모르겠다. 코로나는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었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부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회는 비대면, 재택근무, 무급휴직 등 업무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인천공항은 2019년 대비 2021년 운항편 기준 “-67%”, 승객 기준으로 “-95%”로 감소했다. 하지만 공항은 끊임없이 돌아갔다. 아니 끊임없이 돌아가야만 했다. 승객은 없었지만 시설은 전보다 더욱 꼼꼼하게 점검했고 깨끗해야했다. 불필요한 시설물은 작동을 멈추고 효율을 높였다. 절차만 강조되던 업무는 개선을 시도하였다. 공항운영 환경이 생산성 향상과 효율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본격화되었다.

다시 22년 6월. 승객은 공항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항공사 직원들도 다시 공항으로 모이고 있었고, 시설들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회복 속도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는 이제 시작이다. 그간 생산성 향상과 효율이 강조되면서 SI와 자동화 등이 부각되었다. 이런 패러다임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왔었고, 우리는 공항운영 및 시설관리의 노하우를 가진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변화에 맞춰 적응하면서 업무를 해왔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 및 노하우 중 버릴 것은 과감히 자동화 시키고 대체 불가능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모두 잘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알림’ <건강관리실 운영 재개>

“몸이 안좋거나 아플 때는 208호 건강관리실을 찾아주세요!”

건강관리실이 6월 16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업무 중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되거나, 감기증상이 있거나, 다쳤을 경우 등에는 건강관리실에 방문해주세요. 아픈 곳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간이검사도 가능하니 언제나 환영입니다~!

구 분	세부 내용
의약품	의약품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지사제, 위장관보호제, 알러지약 등), 피부질환용약(소양증 등), 안과용약(충혈, 다래끼 등)
상처관리	자상, 타박상, 화상 등의 상처관리
간이검사	혈압 측정, 키 몸무게 측정, 체성분 분석 검사, 혈당·요산·콜레스테롤 검사 등



▲ 건강관리실 내부 모습 ※ 위치 : 제2합동청사 2층 208호

우리회사 Q&A

☆ 궁금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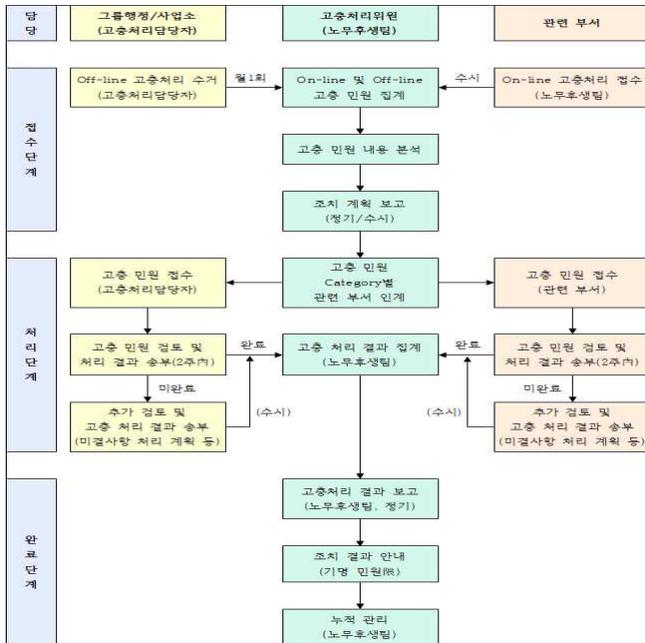
우리 회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며 노무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 처리 관련하여 아래 3가지의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기계행정팀 강병길님)

Q1. 고충 작성 후 제출 시 오프라인 고충처리함 수령일이 월 1회 (매월 3번째 목요일)로 알고 있지만 온라인도 제출 내용 열람일이 동일하지?

A1. 오프라인 고충처리함 수령일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고충처리함은 2주 1회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담당자들이 그 외로도 수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의 경우, 업무 성격에 따라 고충처리담당자에게 E-Mail 혹은 유선연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고충 접수 후 처리 절차? (민원 분석 및 고충 종류별 처리 절차 과정)

A2. 고충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Q3. 고충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 민원 해결 및 결과 통보는 접수 후 10일 이내 또는 매월 1번째 월요일 등)

A3. 고충민원 접수 후 고충처리 기한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처리 내용 점검 후 즉시 조치 결과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무기명 고충처리 제외). 단, 고충내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궁금증 해결완료~

칭찬합니다!

칭찬받은 직원 : 토목조경사업소 박태화님

토목조경사업소 박태화대리는 평소 조경 관련 대내외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최근 「제3회 LH가든쇼」 '시민참여 정원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과 꾸준한 도전의식이 동료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이를 칭찬합니다.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토목조경사업소 김효심님이 보낸 칭찬



칭찬받은 소감 및 인터뷰

Q. 조경 관련 대내외 공모전에 몇 번 정도 참여 하셨나요?

A. 정원 관련된 공모전에 매년은 아니더라도 2-3년에 한 번씩 4번 정도 참여하고 수상은 3번 했습니다.

Q. 대내외 공모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 하시나요?

A. 토목조경사업소에서 조경 쪽 일을 하고있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여기 일만 생각하게 되는데 공모전에 나갈 때마다 새로 차근차근 배운다는 느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잊어버리니까요. 초심을 찾고자 참여하는 거죠

Q. 조경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나요?

A. 협력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쪽 계통 공부도 좀 하고 공모전도 나가고 하면서 조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죠

Q. 이번에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저는 'Go in 돌'이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이번 공모전 주제가 '검단 신도시의 과거'였습니다. 예전 검단 신도시에 고인돌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실제로 주변에 고인돌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산-구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있던 구조물 중 하나가 고인돌이니까,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의 개념하고 합쳐서 그때부터 이어지는 연결점으로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파트들이 깔끔하고 직선적이잖아요, 고인돌은 투박하니까 대비시켜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칭찬받은 직원 : 전력운영사업소 김명원님

심정지 환자에게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한 직원을 칭찬합니다. 2022.3.18.(금) 17시경 제1여객터미널 L/S 지상 2층(436 섹터) 중앙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환자의 의식 상태와 외상 등을 확인하고, 바로 CPR을 실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공항소방대에 대신 연락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공항소방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CPR을 계속 실시하였고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여 인계후 홀연히 출근을 하였는데 출근 후 보안경비대로부터 인적 확인 전화를 받았고, 해당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여 인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저질환이 없었던 60대 한국 남성이 갑작스런 심정지를 당해 위험한 상황에서 김명원 과장이 야간 출근 중임에도 빠른 상황판단으로 공항소방대에 연락 및 CPR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은 선행사례로 알려질 필요성이 있어 칭찬합니다.

전력운영사업소 김현태님이 보낸 칭찬

칭찬받은 소감 및 인터뷰

Q. 칭찬받은 기분이 어떠신지요?

A. 좋죠. 칭찬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Q. CPR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A. CPR 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죠. 비상사고 훈련, 사무실 교육 등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CPR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Q.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A.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저분이 쓰러졌으니까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한거죠. 회사에서 운동을 하고 사무실 가려고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가방도 내팽개치고 CPR을 실시하러 갔죠. 제가 CPR을 하고 있을 때까지는 호흡이 거의 없었는데, 다행히 호흡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평소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